



내부정보 유출방지, DRM은 어떨까요? 파수닷컴

박은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대리 eun@kisia.or.kr

지난해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이나 조선 설계도면 유출, 첨단 와이브로 기술 유출시도 등에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산업기밀 유출사고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부정보 유출 문제는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08년 기업 정보보호 이슈 중 하나로,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정보유출은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 더 나아가 기업의 존폐여부까지도 생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유출 사고에는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정보 보호하는 DRM 기술부상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은 물론 허가된 내부자에 의한 유출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용자라도,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실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해도 데이터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어 가장 원천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내부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때문에 DRM 기술은 경로차단, 매체제어, 콘텐츠 암호화, 유출 모니터링 등 이미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타 내부 보안 솔루션들(보안 USB, PC 보안 솔루션 등) 등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수닷컴이 지난 1998년 디지털저작권 관리기술을 상용화해, DRM 솔루션을 개발 적용한 DRM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원천기술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발맞춰 보안이 필요한 영역 및 산업 환경별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죠. 축적된 DRM 기술 상용화와 다양한 DRM 솔루션 라인업,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DRM 리더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한 파수닷컴. 그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내부정보 유출방지 강화를 기대해 봅니다. S